



‘완전 해결’에 가깝기를

1949년 1월 6일 봉개동 지역에 2연대의 토벌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들에게 쫓겨 피신하던 중 총에 맞아 희생된 주민 변병생 씨의 품에는 두 살 난 젖먹이 딸이 있었다. 엄마라고 제대로 불러보지도, 몽글한 그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딸과 엄마는 한낱한시에 세상을 떠났다. 제주4·3의 광풍이 섬을 뒤흔든 지 76년이 지났다. 아직도 ‘완전 해결’이라는 단어의 여백이 크고 깊다. 부디 올해는 마침표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본다. /김명선 주무관

늘봄학교 정책 혼선 지적...지역사회 힘 모아야

제425회 임시회 회기 마무리

교육행정 주요 업무보고 진행 APEC 제주 개최 결의안 채택

지난 3월 19일 시작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5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425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2024년 교육행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의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업무협약체결 보고 등이 진행됐다. 새 학기부터 진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며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등의 안건 심

사를 진행한 가운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형평성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제주는 국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자 세계가 인정한 국제휴양관광도시이며, 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늘봄학교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돌봄을 학교만의 문제로 떠넘기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행정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청년·인구정책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26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며,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이뤄진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 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세무사, 교수, 금융분야 경력자 등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으로는 강성의 의원이 선출됐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해 감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5월 31일까지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길 바란다”면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강성의 의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 76주년,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지면안내

- 2 제425회 임시회
- 3~5 주요 이슈
- 6 생생 의정활동
- 8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이탈 의료진, 빠른 복귀 호소한다”

제425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개회사서 전공의 집단행동 우려

“저출산 시대 맞는 교육정책 마련 시급해”

관광·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스포츠 대회 유치 필요도 언급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3월 19일 제42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과 중증 의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은 곧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의료진들의 빠른 복귀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 새 학기를 맞았지만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었다”며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저출산 여파는 교육 현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소규모학교와 과대규모학교로 양분되고, 이로 인해 교육 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경학 의장은 지난달 열린

PBA-LPBA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언급하며 “제주에서 처음 열린 이 대회의 모든 경기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며 “순간 최대 접속자 수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제주(JEJU)’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규모 있는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과 관련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유치는 고용 창출과 인구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국의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



다”며 “제주만의 장점과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기업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이 다가왔다. 이번 추념식에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4·3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4·3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올바른 인성 갖추기, 무엇보다 중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학교 안전 내실화 등 올해 역점과제 추진 밝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3월 1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주요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올 해 인성교육 활성화와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역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은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 우선 시행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운영되어 있고 제주도 전역에 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정부의 굵직굵직한 교육정책들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단성 중학교의 혼성 중학교 전환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 등도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교육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중한 가치를 향상시키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워 주기 위한 제주4·3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일은 제주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며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아이들의 학력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어 “학생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안전한 등굣길인 ‘통학올레’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서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정서 고위기 학생에게는 치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 의료공백 최소화에 감사

6일 제주한라병원 찾아 “지혜 모아줄 것” 당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3월 6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등이 함께했다. 김경학 의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

사로서의 직업정신을 발휘해 책무를 다해 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지리적인 환경의 특성상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할 경우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모두가 지혜를 모아 지금의 역경을 해결해 나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수 한라병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므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의료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여유를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문 의원,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지방자치·지역발전 기여
1회용품 줄이기 조례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 높은 평가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가 후원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과의 소통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강경문 의원은 본회의 출결사항과 질의, 5분 발언, 조례 제·개정, 주민소통, 대외협력 활동, 보도자료 배포 등 각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환경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복지 지원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함은 물론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2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김시숙, 유공자 포상신청 추진 지지”

3·8세계여성의 날 맞아
도의회 여성의원, 서훈 촉구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9명은 “제주 여성 김시숙 지사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이 끝까지 추진되어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과정에 지지를 보냈다.

김시숙 지사는 지난 1920년 제주여자청년회 조직 활동을 시작으로 1927년 야학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재일본여공노동소비조합 회장을 맡아 여공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김시숙 지사는 재일본여공노동소비조합을 창설해 사업주의 착취에 맞서는 등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신진회에 가입해 항일투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3월 8일 강성익(더불어민주당, 화북동)

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고익숙(교육의원, 제주시 중부)·김경미(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의원 등 여성의원 주관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제주도는 독립유공자 신청에 필요한 추가적인 공적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포상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회 여성의원들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1년간 김시숙 지사의 공훈을 발굴해 서훈 신청을 이끌었으며 현재 포상 신청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행적은 확인되지만, 후손들을 찾을 수 없거나 사후 행적이 밝혀지지 않아 잊힌 제주여성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 신청을 통해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성용 의원,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지난 3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우수 국회의원·지자체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 사회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하성용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등 여성 마을리더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의

태권도 발상지 역사를 재조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하성용 의원은 “지역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고, 마을단위 민주적 의사형성과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의정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정책과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담고 있는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지난 1월 4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2월 29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됐다.

도의회는 재의결된 조례를 제주도로 이송했으나 기한 내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는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토록 규정돼 있다.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제12대 의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8건이다.

제주도의회-서울시의회, 교류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3월 7~8일 양일간 타지역 의회와의 교류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서남물재생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회를 찾은 이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양 지역의 재정 상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현안 중 하나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

련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고 여유 공간을 공원, 물재생체험관, 전망대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 서남물재생센터를 방문했다. 관계자로부터 기관 운영 상황을 듣고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양용만 위원장은 “이번 기관방문 및 업무연찬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의정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면서 “타지역 선진 사례를 제주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제주, 교육공약 제안

총선 예비후보에 제안서 전달
6개 교육분야 정책 엄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미래제주(원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정책들을 엄선한 것으로, 6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선정된 6개 공약은 △제주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제주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저출산에 따른 읍면 지역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교육의원 제도 일몰 대안 마련 △교육활동 지원 제도 개선 입법 추진이다.

정이운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을 제주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단독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선정된 공약들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원팀이 되어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제주 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정책들을 엄선한 것이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지역돌봄기관 협력 정책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과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지난 3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늘봄학교 정책과 지역돌봄기관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2024년 1학기부터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이 학교 여건과 지역돌봄 인프라를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며 학교와 지역돌봄기관 상호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황국 의원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와 지역돌봄기관 간의 상호 협력 연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 재확립 필요”

의장·사회보장특별위원회
3월 7일 우리복지관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김경학 의장과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지난 3월 7일 고령장애인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고령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기준 필요성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에 대한 현장에서의 생각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 고령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제주도 내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지원 방안에 대해 주목해 왔



다. 장애인은 조기노화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에 따르면 65세 미만이면 필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지홍 위원장은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 재확립의 필요성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에 있다”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의 고령장애인 정의가 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상으로 고령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현재 도내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령장애인 기준인 65세 이상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노년기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령장애인의 정의와 연령기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선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모색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관계자와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2월 28일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어선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어선주협의회 관계자 및 제주도 자원순환과와 수산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선어업 활동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택 제주도어선주협의회 부회장은 “해양쓰레기는 통계나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피해

는 어업인들이 보고 있다”면서 “보상금제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준다면 어업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근수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어선 내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장소가 마련돼야 한다”며 “배의 구조변경이나 용적 증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제주도의 탈플라스틱 정책 일환으로 해양에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비롯해 어업활동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어선사고 수습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수습 현장을 방문해 수색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상임위 위원들은 지난 3월 1일 마라도 인근해상 전복 사고 발생으로 서귀포항에 설치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은 데 이어, 11일 통영 인근해상 전복사고 발생으로 한림항에 설치된 사고 수습현장지원 상황실을 찾았다.

강연호 위원장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노력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함께 방문한 위원들도 “실효성 있는 어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원 일 잘했다” 우수조례 수상 휩쓸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영예
개인·공무원부문 수상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한 해 도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월 23일 송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제주도의회는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공무원부문에서 수상을 휩쓸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아동에 대한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를 남겼다.

개인부문에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 잡힌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세대별 형평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총 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 파급효과 창출 등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마을 단위 여성 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등 마을 단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4·3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을 위한 지원과 사전 모니터링 체계 등을 마련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마을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공동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육교직원의 인권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안전한 노동

환경 제공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영유아의 복지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부문에서는 우수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월호 5면에 실렸던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게재합니다.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대표의원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3년도 연구활동 실적 보고와 함께 2024년 연구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을 선정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정책적 제언 등을 할 계획이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올해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양병우, 더불어민주당, 대정읍)는 지난 2월 29일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연구 단체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2024년 활동 계획 및 예산 승

인이 이뤄졌다. 신임 대표는 양병우 의원이, 부대표에는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이름을 올렸다. 양병우 대표의원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3특별법 영문법률 용어 수정 완료

4·3특위, 한국법제연구원 방문
‘riot(폭동)’ 용어 수정 요청
3월 20일 공식 사이트 반영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완료됐다.

제주특별자치도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가 지난 3월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결과다.

한국법제연구원은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 제공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4·3특별법의 입

법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소요사태’와는 달리 번역함이 타당한 바,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해석에 근거하여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해 3월 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법령 사이트를 통해 수정된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님과 유족 그리고 도민들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기록원 설립 위한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과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지난 3월 6일과 7일 경남기록원, 창원대학교 박물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방문해, 기록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록원 방문은 제주기록원 설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기록권을 확대하고 기록물 영구 보존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연구사 등도 함께 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기록원 설립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재확인하게 됐다”며 “경남기록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주기록원은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유서 깊은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지만, 보존과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해 자칫하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함께 방문한 관계자들 모두가 제주기록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주기록원이 명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3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각장애는 장애유형 중 직업인으로 재활해 사회로 복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에 속한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안마사 제도’를 마련해 의료법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고 대한안마사회회 중앙회 현태호 대리가 ‘제주지역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안마사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신규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미 위원장은 “직업재활을 장애인복지의 꽃이라고 하지만 열악한 현실로 인하여 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

“공항 소음 피해 주민, 합리적 보상 이뤄져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3월 22일 대회의실에서 ‘공항소음 피해 주민 보호와 합리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승도 제주공항 소음민원 센터장이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 나섰다.

현승도 센터장은 “주요 민원으로 ‘방음시설’ 노후화나 성능저하 문제로 전면 교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방음시설 내구연한이나 재설치 조건 등의 현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 인근 한국공항공사, 한국자산공사 토지가 방치되면서 관광지경관이 피해를 보고 있어 공용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익을 위한 방안이 주문된다”고 덧붙였다.

현승도 센터장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공항 지역에서 운행하는 항공기, 지상조업 장비,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악취 등 고정 대기질 측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공항 이용에 따른 이익은 불특정 다수가 가져가지만,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면서 “소음피해 주민들은 보호받아야 하며, 그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 후속 조치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 3월 25일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국관광공사의 중문단지 내 공공용지에 대한 민간 매각 부지 확인 및 개관 20주년을 맞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현황 점검,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주 경기장으로 사용 예정인 강창학 종합경기장과 그 일원의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승아 위원장은 “감사원 지적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처리 철자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용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의 섬 제주를 알리고 국제평화협력 구축을 위한 제주국제평화센터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2025년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보다 세심한 노력과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

“RIS, 전략적 인력 육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3월 25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RIS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RIS사업의 핵심보직자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되고 있다”며 “조직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인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은 “올해 주요업무보고자료에 사업비 2,135억원이 소요되는 RIS관련 사업은 빠져 있다. 지사가 사업의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1차년도 사업비의 인건비 집행률은 50% 수준으로, 구성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2차년도에는 기구축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핵심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역 미래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선정, 그에 맞는 전략적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위원장도 “지난해 추경에서 1차년도 지방비가 교부돼 지난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느라 교육환경개선 및 내부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던바, 2차년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늘봄 교실 공간 부족...도마 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가 지난 3월 20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늘봄학교’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늘봄 교실 가운데 45개 학급이 겸용 교실”이라고 꼬집으며 “해당 학급의 경우 1학년 교실을 돌봄 교실로 같이 사용한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학기에 입학한 학부모들은 교사와 상담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2동)은 학생수 감소와 관련해 “저출산 관련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청도 함께 고민해 학생수 변화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청이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과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후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성산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체제개편안 추진에 대해 공감대 형성 미흡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공청회를 실시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자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주권자인 ‘주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프랑스 정치철학자 조지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주 회자되는 격언이다. 이 말은 “모든 주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를 갖는다”고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갖기 위해, 주권자인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을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의 근원이자 핵심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을단위 주민의 참여와 민주주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단위 민주주의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발전된 곳이다. 마을이 ‘주민자치의 산실(産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마을 청년회부터 연합청년회, 자생마을에서부터 리단위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회의를 통해 집단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청년회 일원으로 참여했던 회의, 마을회 정기총회 등 회의체의 구성원으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토론하며 투표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다양한 경험은 도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부터 읍면동 단위의 연합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나아가 지방의회까지 민주적인 회의문화가 상향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주민 스스로 회의와 토론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을 단위 회의의 경우 회의용어도 낯설고, 절차가 어렵다 보니 주민들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등 형식과 실질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을 공동체에 필요한 회의 진행 관련 지식과 표준 모델이 제시되고, 각 회의체가 자율적으로 회의문화를 정착시키며,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도의회의 회의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민주적 회의 문화와 여건 마련에 도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작은 노력들과 역량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는 지역의 주권자로서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좋은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이 주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다.

‘2025 APEC’은 빛나는 서귀포 중문에서

송진아

중문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시 선정을 위해 제주, 인천, 부산, 경주가 치열하게 유치활동 중이다.

APEC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21개국으로 정상회의 참가규모는 21개국 정상, 정부대표단, 기업인 등 3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경제파급 효과는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파급력 때문에 각 지역에서 열심히 유치활동 중이다.

얼마 전 서귀포시 공직자와 함께하는 도정시책 공유의 자리에서 서귀포시 부시장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가 우리 제주에서 개최된다면 국제회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서귀포시 중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문득 생각났다.

중문은 2010년 한일중 정상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등 국제회의가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그 랜드마크 시설인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위치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최적지다.

또한 중문대포주상절리대, 천제연

폭포, 베릿내오름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에 숙박시설도 풍부하다. 이런 최적의 조건으로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경제파급 효과가 큰 국제행사인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빛나는 제주에서 개최되길, 그리고 필자가 근무하는 이곳 중문에서 개최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내년에는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제주도에 그리고 서귀포시에 활력과 웃음이 넘쳐나길 바란다.

요즘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을 위한 제주도의 열기가 뜨겁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됐고 개최도

투자 리딩방의 유혹, 사기의 그림자도 함께

강지혁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경장



‘투자 리딩방’은 투자업체 및 전문 트레이더를 사칭하며 매수나 매도의 타이밍을 리딩(Leading) 해준다고 단체대화방에 초대해 VIP 회원비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유형이다. 인터넷 광고, 문자, SNS 등을 통해 투자 종목 구매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짜 투자사이트 접속 링크를 보내거나 단체채팅방에 초대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해당 채팅방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사

용해 가짜의 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방법으로 마치 VIP 회원들이나 투자금을 맡긴 사람들이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유혹한다.

이후 한정된 기간에만 제공되는 특별 혜택 투자 기회를 약속하면서 급박한 투자를 재촉해 VIP 회원비나 투자금을 입금받거나 ‘투자금이 수십 배의 수익이 났으니 돈을 출금하려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다.

실제로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해 최초 투자금을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을 실제 입금해 주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투자 리딩방’ 사기는 금원이 피의자에게 지급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상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고수익 인증샷은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유혹하기 위한 가짜라는 것을 명심하고, 소신 있는 투자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최근 투자 열풍이 불며 ‘투자 리딩방’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도내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백나무 심으며 되새기는 진정한 4·3의 의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3월 26일 동북리 체육센터 공터 일원에서 의원 및 직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동백나무 300본을 식재했다. 또한,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식재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4·3의 완전한 해

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함께 하였다.

김경학 의장은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천에 최고의 방법”이라며 나무심기 실천을 강조했다

고, “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식재하며 4·3이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특별법 제43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

위원회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위원장으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 중부)·고태민(국민의힘, 애월읍갑)·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의원이 포함됐다.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28일에 실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세계 자폐인의 날...“파란 불 밝혀요”

도의회 의사당 건물 외벽 블루라이트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7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동참한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캠페인이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지역 명소에서는 파란 불을 밝혀 자폐성 장애

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4월 2일부터 8일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외벽에 파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3월 공감·소통의날 일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공감·소통의날을 개최했다.

이번 공감·소통의 날은 ‘우리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체험 위주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제주소방서 소방대원들은 119 신고 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 방법 등을 교육했다.

참여 직원들은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교육과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 분석 「정책연구」 제7호 발간

경제 및 스포츠 분야 엮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지역 주요 현안을 분석해 보고서로 엮은 「정책연구」 제7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 제7호에는 제주지역의 민생과 관련한 정책 대안과 경제 평가 및 전망, 스포츠분야 등에 대한 기획 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관련 연구자료들이 수록됐다. 특히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역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의 분석 자료들이 실렸다.

김경학 의장은 “연 1회 발간하는 「정책연구」가 도민은 물론 유관기관, 국회 등 중앙부처, 전국 시·도의회 등

에 배부돼 제주 경제와 스포츠 분야의 정책 및 의정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길 바란다”면서 “도의회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길잡이로서도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